

폭염 질환 비상...광주시 안전망 총가동

광주지역 질환자 21명 발생 5개 소방서 구급차 30대 비치 재난도우미 취약층 매일 관리

광주시는 앞으로 폭염이 한 달여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폭염안전망을 총 가동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13개 협업부서를 비롯한 5개 자치구, 광주도시철도공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단체에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폭염대비에 총력 대응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지역 온열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시민 15명, 외부인 6명 등 21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현재 3명이 입원 중이다. 온열질환 발생 시간은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농업, 동물원, 운동장, 건축 등 야외활동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21명 중 6명은 119 구급차에 의해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온열질환의 주요 발생요인이 낮 동안 무리한 야외활동인 것으로 보고, 5개 자치구에 설치된 전광판과 마을방송 등 190곳의 예·경보시스템을 모두 가동해 야외활

동 자제 등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온열질환자가 주로 119구급차량을 활용한 점을 감안, 5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119폭염구급차 30대에 폭염장비 9종을 비치했다.

유동인구가 많아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 역사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해 평상, 선풍기, 생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재난도우미 1일 1회 방문제'도 운영된다. 폭염 기간에는 통장을 비롯한 재난도우미가 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루 1회 이상

안부전화나 직접 방문해 관리하게 된다.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도로에 쌓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 1회 운영하던 살수 차량을 전동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폭염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안전망을 확대 운영한다"며 "시민들도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등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스마트폰 없이 12일 지내기' 중학생 캠프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 여중생 3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실시한다.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센터 최초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열어 올해까지 11차례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치유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11박 12일 동안 인터넷·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와의 단절된 환경에서 지낸다. 이 기간동안 임상심리사 및 상담심리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 인식, 자기통제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집단상담에 나서고, 부모 교육, 체험·대안활동 프로그램 등을 함께 한다.

차은선 센터장은 "청소년기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저해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전화 062-1388로 전화를 하면 전문 상담자에게 무료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수족구병 급증 어린이 손씻기 철저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고열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여름철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실시한 수족구, 바이러스성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사업 결과, 6월에 40.7%(113건 중 46건), 7월 첫째주에 48.8%(33건 중 16건), 둘째주에는 56.8%(37건 중 21건)로 5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수족구로 의심되는 가검물 검출률은 7월 첫째주 50%(4건 중 2건), 둘째주 88.9%(9건 중 8건)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년도 남지 않은 광주수영대회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조직위원장)이 지난 16일 동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회 준비상황 보고회에 참석해 수영대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광주시 제공)

고실초 학생들 "시장님 답장 받았어요"

10통에 담긴 건의 조치키로

광주 고실초교 5학년 4반 담임 박준 교사와 학생들이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박준 교사와 학생 9명은 자체 실시한 모의선거 결과에 따른 이용섭 시장의 당선증과 축하인사 및 시장에게 바라는 광주의 내용이 담긴 10장의 손편지를 지난 9일 광주시청 비서실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편지에서 박준 교사는 "실제 선거 절차에 준해 모의투표를 실시했고 선거 하루 후인 6월 14일 개표 결과 실제 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와 학생들이 신기해 하고 고무됐다"고 전했다.

김서진 학생 등 9명은 편지를 통해 문화시설 증대, 아파트환경 개선, 시민과의 소통, 공약 이행 철저 등 광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시장은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이 시장은 편지에서 "취임 이후 바쁘게 지내던 중 학생 여러분의 당선증과 편지가 큰 힘이 됐다"며 "귀한 의견을 겸허히 새겨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편지를 통해 건의된 내용은 온라인 시민소통플랫폼 '광주행복1번가'에 추가로 접수시켜 관련부서 지정 후 조치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평생학습형 일자리의 미래...정책 심포지엄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평생학습형 일자리 정책 및 모델 발굴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평생학습형 일자리란 지역 주민이 평생 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재능·역량을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로 창출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창조적 일자리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김진화 동의대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학습형 일자리의 가치와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사례발표와 토론에는 좌장인 임형택 광주대 교수를 중심으로 양안나 서울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장(중장년층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방안), 정지연

MYSC 수석컨설턴트(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집합적 임팩트), 고유선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연구원(광주 평생학습형 일자리 현황 및 사례)이 참여한다.

이계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춘 평생학습형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안 및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평생교육 관계자 외에도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 신청 (<http://bit.ly/lifelongcareer>)을 받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600-5223)에게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 영어캠프' 참가자 27일까지 모집

광주시 남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2018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는 남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광주시 남구압촌동 광주국제영어마을에서 실시한다. 오는 8월 3-4일과 8월 10-11일까지 2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되며 각 기수별로 8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선착순이며, 참가비는 4만 원이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는 참가학생 전원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뒤 수준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내외로 구성, 원어민 강사 1명과 참가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며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광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gvillage.co.kr)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이메일(kenneth@gvillage.c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제영어마을(062-385-0733)이나 남구청 교육지원과(062-607-2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영산강·황룡강변에 씨 뿌린 코스모스 가을에 만나요"

해마다 코스모스 꽃길로 시민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해온 영산강과 황룡강변이 올해도 코스모스 물결을 이루게 된다.

광주시는 16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영산강 자연거닐안내센터와 황룡강 진수공원 등 1만3000㎡ 일대에 코스모스 씨 40kg을 뿌렸다"고 밝혔다. 파종된 코스모스는 국화과에 속한 일

년초화로 '소녀의 순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핀다.

시는 코스모스가 개화할 때까지 순자르기, 비료주기,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몽칩시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뜨면 중개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중개사님! 실장님!들이 많습니다.

(주)가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는 개발지, 시행처, npl, 급매물 등 계약성사가 빠른 현장정보를 제공하며, 20여명의 직원들끼리 손님과 매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함께 파이팅 하실분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연락처 010-2800-3589

